#### 11 제20144호

# 기피시설 몰려 주민들 고통…목포시는 나몰라라

#### 삼향동 일대 도축장·폐기물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집적화 대박산·원산마을 대책 촉구 집회…市 기금마련도 않고 외면

목포시 삼향동 일대에 각종 기피시설이 들어 서면서 주변 대박산 마을과 원산 마을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 다. 특히 목포시는 해당 지역민의 거주환경개선 등에 대한 노력은커녕 법적으로 조성해야할 기 금마저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 등 주민 피해를 외면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20일 목포시와 대박산·원산 마을 주민 등에 따르면 삼향동 일대에 올해에만 사업장 폐기물을 분쇄하는 중간처리업체와 도축장이 옮겨왔으며, 이달부터는 화장장납골당도 가동을 시작했다. 또 주변에는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과 쓰레기 매립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인 음식물류 자원화 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인 환경에너지 센터 등이 운영 중이다.

현재 이들 시설 주변에는 대박산 마을 218세 대 437명, 월산 마을 103세대 223명 등 660명이

해당 지역민들은 연이어 들어선 기피시설로 거주 자체가 힘들 정도라며 목포시에 해결책을 촉구하는 항의 집회 등을 이어가고 있다.

조요한 목포시의회 의원은 "이렇게 많은 기피 시설이 집적화된 곳은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항의 집회는 집회가 아닌 못살겠다는 절규"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폐촉법)에 따라 인근 주 변 마을지원을 위해 종량제봉투 판매 수익을 비 롯한 사업장음식물·대형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 ■ 삼향동 일대 기피시설 현황도



목포

돼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 목포시는 2014년 3억1200만원에 이어

실제 목포시는 2014년 3억1200만원에 이어 2015년 3억1300만원의 기금을 조성했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1억여원이 삭감된 2억900만원만 편성했다.

조 의원은 "남모를 고통을 안고 고향 마을을

지키고 있는 주민들의 거주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지는 못할망정 법적으로 조성해야 할 예산까지 깎고 있다"면서 "사실상 목포시가 주민의 입장에서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해당 마을 주민들은 목포시에 ▲불법 혐오물 반입 등 감시원 증원 ▲감시원 급여 현실화 ▲재활용 선별장 운영권 ▲도시가스 공급 ▲대박산 마을 순환도로 건설 ▲대양산단 조성 후고물·고철 처리권 ▲목포추모공원 일부 시설 운영권 등 7개 항목을 마을 수익 사업 등으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단 한건도 수용되지 않고 있다.

김문옥 목포시 관광경제국장은 "목포추모공 원 일부 시설 운영권과 대양산단 고물·고철 처 리권 등은 민간 사업자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현 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2개 항을 제외한 나머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목포시의회 내년 예산 37억 삭감 예결위 심의…신규 사업 대폭 줄여

목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23회 정례회에서 내년도 목포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고 42건 37억3100 만원을 삭감했다. 이는 각 상임위가 계수조정을 통해 삭감해 예결특위에 올린 43억원보다 6억원이 부활한 것이다.

소관 상임위별 삭감액을 보면 기획복지위원회 3억7000 만원, 관광경제위원회 1억8000만원, 도시건설위원회 37억 7000만원 등이다.

최석호 예결특위위원장은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대부분 신규 사업들 위주로 삭감되고 특히 국·도비 매칭사업도 삭 감돼 예결특위로 넘어왔으나 사업건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예산안 가운데 쟁점으로 대두됐던 대양산단 조성 기반시설 사업비중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22억원 전액이 삭감됐으며, 해상케이블카 고하도 주차장 조성사업 10억원도 전액 삭감하고 용역실시 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기대를 모았던 목포 백년로 메디컬 스트리트 조성 사업비 1억원은 도비 5000만원이 미반영됐다는 이유로 삭감됐다.

축제 관련 예산도 대폭 손질됐다. 목포 항구축제 길놀이 행사(2300만원)가 1490만원이 감액됐으며, 목원 음식문화축제 (5000만원)는 1000만원이 줄었다. 또 프리마켓 운영지원(5000만원)은 50% 삭감됐으며 크리스마스 축제(7000만원)는 2000만원이 삭감됐다. 새해 첫날 희망 맞이 행사비도 전액 삭감됐다.

## 이난영 탄생 100주년 "목포, 내년 한해 축제에 빠진다



지난 1935년 당시 발매됐던 목포의 눈물 원판으로, 5만장이 팔렸지만 현재는 목포 향토문화관 내 대중가요 코너에 유일하게 전시돼 있다.



유달산 중턱에 세워져 있는 목포의 눈물 노래

市, 예산 1억5000여만원 편성 기념행사 6월 4~6일 개최 전시회·난영가요제 등 풍성 목포의 눈물 역사거리 공연도

한국 대중 가요사에 큰 족적을 남긴 가수 이난 영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2016년 내내 다양한 기념행사가 마련된다. 기념식을 시작으로 기획 전시, 전국 경연대회, 시립·민간단체 공연 등이 열린다.

목포시는 20일 "목포가 낳은 가수 이난영 여사의 뜻을 기리고 명맥을 잇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1억5000여만 원을 편성했다"며 "'목포의 눈물 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 등과 행사 추진시기와 내용 등을 협의해 행사시기를 맞추고 행사 추진 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해 난영 기념행사를 3일 동안 축제 형태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난영가요제 개최 시기를 10월 에서 이난영 탄생일인 6월 6일 전후로 앞당기고, 가수 공연 위주로 진행돼온 프로그램도 탄생 100주년 기념에 포커스를 맞춰 이난영 관련 영상을 제작·상영하는 등 헌정 무대와 축하공연으로 꾸미기로 했다.

또 '가수 이난영 전시회'를 주제로 기념 사업 회가 주관하는 '유품 전시'와 함께 '일제시대 목 포 문화전' 등이 열리고 역사 문화 투어인 '목포 의 눈물 역사의 거리 공연 여행'이 원도심 일원 에서 펼쳐진다.



목포의 눈물 기념사업회가 지난 10월 목포악기사에서 개최한 이난영 유품 전시회 모습. 이난영이 즐겨 입었던 의상과 난영 가요제 상패 등이 눈길을 끈다.

이난영과 목포의 눈물을 주제로 한 학술 세미 나와 난영 생가터 잔치 한마당, 난영 유년기 연 극 공연, 유가족인 '김시스터즈' 토크 콘서트 등 크고 작은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 같은 다양한 행사 등을 통해 100주년 기념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상승시 켜 나간다는 게 목포시의 계획이다.

목포시는 특히 이난영 탄생 100주년을 전국에 알리고, 참여형 행사 추진을 위해 '이난영 노래 관현악 전국 경연대회'와 '이난영 모창 경연대회'도 개최하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내년 6월 4일부터 3일 동 안 축제 형식의 이난영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목포의 눈물' 등의 음악사적·사회문화사적 가치를 고양 시키고 예향 목포의 명성을 드높이는 계기로 삼 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귀선 목포시의회 의원은 "탄생 100주년을 맞아 시립예술단체들이 모여 이난영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과 같은 합동 공연을 추진 했으면 한다"면서 "특히 목포의 눈물 노랫말에 유달산과 노적봉이 나오는 만큼 현재 노적봉 인 근에 있는 '노적봉 미술관'에 별도의 전시 공간 을 마련해 1년 동안 상설 전시회를 개최하는 방 안을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 해상케이블카 11개사 신청 접수 이달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민선 6기 목포시의 최대 역점 사업인 목포해상케이블카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2개 컨소시엄을 포함한 11개 업체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목포시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중 사업계획 보고 회와 심사 등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업무분 장과 책임한계, 운영수익금 배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를 거쳐 내년 1월 사업협약을 공식 체결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대학과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등에 소속된 분야별 전문가들의 신청을 받아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을 포함해 9개 분야 1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앞으로 공모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력과 안정성, 지역사회 기여도, 환경보전대책, 재정능력 등을 평가하게 된다.

목포시는 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실시계획 인가 등 1년 동안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2017년 말께나 운행에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목포 해상케이블카는 민간사업자가 자기자본으로 실시설계와 케이블카 건설 및 기타 부대시설 등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수익금의 일부를 목포시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다만 민간사업자가 관련법에 따라 토지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목포시가 토지만 매입하고 민간사업자가 조성해 시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한편 해양케이블카 범추진위원회는 지난 16일 "목포시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시의회 예결특위가 고하도 해상케이블카 주차장 조성 사업비 10억 원을 삭감한 것은 전형적인 시정 발목잡기"라면서 "신속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 소촌동 모아드림아파트 | 온세계아파트 특별분양



KTX 5분거리

광주시청 10분거리

나주혁신도시 20분거리

무안공항 원활

교육환경 우수 지역

어룡초, 중앙초, 정광중·고등학교, 광주여대, 호남대 근거리 가격은 **500만원대** 

<sup>풍부한</sup> 임대수요

우수한 **교육환경** 

선착순 동, 호수지정

062383-6400